

영 유명 성당서 불교 수행을?

영국 대성당, 지난 2년 간 불교 수행 수업 실시

격주 금요일마다 20여명 참여
대성당 내 한 방서 명상 수업
참사회 의장 크리스토퍼 첫 시작
“이중 종교” 시대란 것 인정해야
보수파 반발 거세 향후 계획 눈길



영국국교회 '요크 대성당'은 지난 2년 간 불교 수행법의 하나인 '선 수행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진출처=telegraph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자치주 요크(York)에 위치한 영국국교회 성당 '요크 대성당(York Minster)'이 기독교 복음주의 보수파로부터 맹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요크 대성당이 중세 대성당 구역서 불교의 선 명상을 허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국 신문 'The guardian'은 5월 17일 "요크의 대주교 존 센타무(John Sentamu)는 불교와 공존할 수 없는 그 구역(성당)서 격주 불교의 침묵 명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 관련, 신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 수행 그룹은 대성당의 한 방에서 2년 동안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격주 금요일마다 20여 명 사람들이 90분 동안

명상수행에 일한다. 그러나 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대성당 내부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종교와 철저히 분리돼 있다.

요크의 주임 사제 비비안 포울(Vivienne Fauli)은 "명상 수업은 기독교인 및 일반인들에게 선 수행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과 선 수행의 적합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명상 수업은 요크 대성당의 참사회 의장 크리스토퍼 콜링우드

(Christopher Collingwood)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크리스토퍼는 스스로 '이중 종교인'이라 일컬으며, 불교의 선 수행 명상을 배워왔다.

크리스토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완전한 이단자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단지 선 수행 자체가 매우 불교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외에 우리는 선 수행을 하면서도 종교적 교리나 신앙을 요구하지도,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종교가 아닌, 이중 혹은 다중 종교를 갖는 추세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주의 보수파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난색을 짓고 있다.

잉글랜드 크리스토프 총회(England's general synod; 영국 국교회의 최고 기관) 소속 안드레아 미니치엘로 윌리엄(Andrea Minichiello Williams)은 "불교는 유신론이 기본인 기독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두 종교를 융합시키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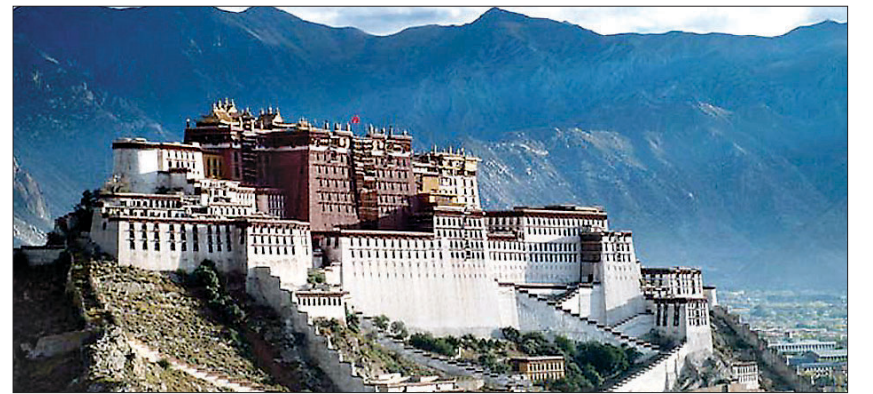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이런 사태가 국가의 최고 성당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을 걱정하고, 요크의 대주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는 교회의 지도부를 장려하려는 기독교의 계획을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선 수행은 스스로 참구(參究)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에 대해 'The guardian'은 "최근 10년 간 '마음챙김명상'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선 수행은 서양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명상센터가 건립되고, 이들은 불교교리가 아닌 영적 마음챙김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익문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 세계 불자들이 찾는 성지 8곳은?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 세계 불교 성지 소개



티베트 '포탈라 궁' 모습.

사진출처=miq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Asia one)은 인도·네팔 외에 티베트, 동남아 불교 국가 등 불자들이 순례하는 세계 곳곳의 불교 성지 8곳을 소개했다.

네팔 룸비니

'룸비니'라는 이름은 오래 전부터 붓다가 태어난 곳의 지명이라 알려져 왔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몇 세기 동안 미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19세기 말 독일인 고고학자 알로이스 뤼터 박사가 돌기둥에 새겨진 고대 비문을 해독하면서 붓다의 출생지인 것이 밝혀졌다. 기원전 3세기 아소카 황제가 이곳을 방문해 기둥을 세우고 붓다를 찬양하고 자신의 방문을 기념했다.

기둥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평화로운 신성한 언덕인 '푸스카리니'가 있다. 붓다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출산 전 몸을 씻고, 태어난 아기를 처음으로 씻긴 곳이다.

인도 부다가야

부다가야엔 아소카 왕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운 '마하보디 사원'이 있다. 초기 불교 사원 가운데 하나로, 드물게 건물 전체가 벽돌로 이루어졌다.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티베트 포탈라 궁

포탈라 궁은 티베트 전통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해발 3600m의 홍산(紅山) 기슭에 요새 모양으로 지은 고층 건축군이다. 토번(吐蕃)왕 손캄캉포가 축조했다는 홍산궁전(紅山宮殿)의 자리에 달라이라마 5세가 17세기 중반 건설했다.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

아누라다푸라는 스리랑카 최대 불교 유적이 있는 곳으로, 기원전 437년에 건설됐다. 8세기까지 삼할라 왕조의 수도였다가 타밀인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것을 19세기 중엽 영국인이 다시 찾아냈다. 옛 수도였을 당시의 큰 불탑과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보리수나무와 관련된 유적이 있으며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미얀마 셰다곤 파고다

'셰(Shwe)'는 금(金)을 의미, 셰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된 다곤의 불탑 사원'이란 뜻이다. 2500년 전 부처님 생전 당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머리 카락을 얻어 이곳에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라오스 전통양식의 건물과 수많은 사원들이 밀집해있다. 또한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미국적인 건물들이 조화된 곳으로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08년에는 뉴욕타임스가 '꼭 가 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한 바 있다.

태국 왓 프라탓 도이수렛

태국 치앙마이서 서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왓 프라탓'은 부처의 사리가 안치됐다는 뜻이다. 1383년 수펄 산 해발 1,000m에 지어져, 태국의 사원 중 가장 전망이 좋은 사원의 하나로 꼽힌다.

300개 계단을 오르면 '황금 대형 불탑'을 만날 수 있다. 란나 왕조 시절, 부처의 사리를 운반하던 흰 코끼리가 스스로 수펄산까지 올라 그 자리서 울고 탑을 3마퀴 돌다 쓰러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당시 흰 코끼리가 운반해 왔다는 사리가 불탑에 안치되어 있다.

베트남 엔투

엔투는 베트남 불교의 죽림 선종교가 탄생한 곳이다. 또한 '여기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속설이 내려져 오며, 고대 사찰과 수많은 탑, 풍요롭고 신비로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관광지로 유명하다.

매년 음력 1월 9일에 시작해 3월말까지 계속되는 '엔투 불교불교축제'는 베트남 북부지역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축제 때마다 하늘이 전체 인공에 8세기까지 삼할라 왕조의 수도였다가 타밀인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것이 이곳을 방문한다. 이보형 객원기자

中·印 '녹야원' 공동 발굴 작업 착수

중국사회과학원 "2020년까지 발굴 및 안전관리 진행"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도 바라나시 인근에 있는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사르나트 유적 조사를 인도 고고학자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중국국제방송

중국과 인도 고고학자들이 공동으로 불교 유적지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국제방송(CRI)은 5월 24일(현지 시간)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도 바라나시 인근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사르나트 유적' 조사를 인도 고고학자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유적지 발굴 작업을 비롯해 보호 및 안전관리 등

이 포함된다. 녹야원(鹿野苑)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성도(成道)한 후 처음으로 설법한 장소다. 현재 이곳에는 건물이 없으나 굽타 시대에는 벽돌구조의 고풍한 건축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더스 문명 정착지에 초점을 맞춘 발굴 조사도 인도 뉴델리 서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국제방송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고고학적 기술과 3D 원격 감지 센서 영상 시스템을 적용해 유물들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국제방송은 "인도와 중국의 불교는 오래전부터 교류해 왔다. 서기 620년대 중국 현장 법사가 인도로 떠나 나란다 사원에서 불교연구에 힘썼고 불교 경전과 불상을 갖고 시안(西安)으로 돌아왔다. 이후 당 태종의 후원을 받아 경전을 번역,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도 저술해 서역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힘썼다"고 보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부처님께 합장한 오바마 미국대통령

미국의 건국이념은 개신교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신교 국가로 봐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는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도 잘 나타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에는 호치민 시의 불교 사찰 복해사(福海寺)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의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

미국 건국이념은 개신교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신교 국가로 봐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는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도 잘 나타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에는 호치민 시의 불교 사찰 복해사(福海寺)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의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WorldBuddhist SanghaYouth' 페이스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반 구성학 부산 강의

구성학 전문가가 만든 핸드폰용 구성학 앱 탄생!

구성학 앱 설명
구성학 앱은 핸드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써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 없이 구성영반이나 사주명조, 만세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용 구성학 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성학 앱의 기능
구성 수를 오행색상으로 구분되어 상의가 쉽게 연상되게 하였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스마트폰에 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를 색으로 표현하고 시간을 영반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성포국은 년월반, 월일반, 일시반 등을 보기 쉽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본명반은 각 궁의 팔괘 및 상의를 표시하여 통변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구성학 앱 다운로드 방법
핸드폰에 있는 앱 스토어에서 구매설치 하거나 앱 스토어를 실행시킨 후 구성학 앱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가격은 30,000원이며 한번구매 이후 추가 비용 발생 없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학 앱 실행시 오류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http://cafe.daum.net/gusungapp)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
부산 사하구 괴정동 194-43
(051) 206-3488

협회등록번호 제0189호
대한靈盤구성학협회

중무법인등록 204-82-76850

禪대한불교조계종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만큼 작은 중단입니다. 도반이나 사형사제처럼 지낼분만 모십니다.

禪대한불교조계종

승려입문, 중도 모십니다. 문의: (051) 206-3488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할담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물독(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피자보(남자의 발사),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세집중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래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Herb NAVER 신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중무법인등록 204-82-76850

禪대한불교조계종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만큼 작은 중단입니다. 도반이나 사형사제처럼 지낼분만 모십니다.

禪대한불교조계종

승려입문, 중도 모십니다. 문의: (051) 206-3488